

# 律藏에 나타난 法服과 우리나라 法服의 比較服飾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comparative costume of sacerdotal robe for Buddhist monk which  
was appeared by the Buddhist commandment in the era of Buddha and Korea—

光州大學校 衣裳學科

助教授 安 明 淑

Dept. of Fashion Design, Kwang Ju University

Associate Prof. Myung-Sook An

## 〈목 차〉

I. 序 論

II. 法服의 定義

III. 律藏에 나타난 法服의 여러가지 要素

IV. 律藏과 比較해 본 우리나라의 法服

V. 結 論

參考文獻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investigate the historical change in Kasa for the Buddhist commandment in the era of Buddha and the Korean Kasa.

The original Kasa specified in Buddhist commandment has many concrete features.

In contrast Korean Kasa is quite simplified and become very practical.

Although we could not follow the numerous original specifications in Kasa, we must maintain and transmit Korean Kasa based in the minimum regulations.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form a unified opinion and to develop a desirable specification for the Korean Kasa.

\* 본 논문은 1991년도 교육부지원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지방대학육성)과제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I. 序 論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외형적인 의복이 精神的인 修行을 하는 사람에게 중요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으나, 외부적인 표현이 일반인의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신성한 종교를 표현하는 宗教衣服의 올바른 착용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服飾史 연구경향이 그동안 一般服飾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들어 特殊服飾에 관한 관심이 늘어 그 中 佛教服飾에 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도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동안 특수복식으로 도외시 되어 왔던 불교복식에 대해 좀더 體系적이고 깊은 연구를 위해 불교복식에 대한 基礎적이고 源流的인 틀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 우리의 法服과 比較를 통해 우리의 法服을 제대로 알고 定立하자는 데 있다.

### 2. 연구내용 및 방법

本研究의 내용은 律藏을 통해 釋尊 當時의 法服의 形態, 色, 衣材, 着衣法 등 여러가지 요소를 알아본 후 가산 律藏을 잘 반영하고 있는 印度의 불교복식을 알아보고, 그것이 한국에 전래된 후 어떻게 변화, 발전되어 사용되고 있는지를 형태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으로 크게 나누어 비교, 검토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南典 巴利律과 北典 五部律의 율장인 文獻研究가 주를 이루고

둘째, 각 寺刹 律師스님들과 袈裟功德에 專念해 오신 高僧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傳承되어온 口傳을 분헌의 뒷받침에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셋째, 現存 遺物과 佛畫, 佛像 등에 표현된 法服을 살펴보는 것이다.

### 3. 연구범위 및 한계점

律 제정 당시 부처님이 弟子들에게 律로 나타내었던 法服에 관한 것을 살펴보는 것으로 현존유물이 부족하고, 다른 일반복식에 비해 자료도 미흡하여 많은 연계성 속에서 연구를 할 수 없음이 안타깝고, 불교라는 종교가 매체가 되므로 불교의 발달 및 융성 시기가 나라마다 달라 여러나라의 同時代 比較研究가 어렵다.

본 연구의 範圍로 法服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要素에도 여러가지가 있었으나 범복의 실제적인 구성 製法이나 縫製法 등은 몇편의 논문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으며, 본 연구에서의 범복은 석존이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던 袈裟로 한하고 다른나라에 전파되면서 그 나라의 기후에 맞게 입었던 그 외의 法服들은 제외하였다.

## II. 法服의 定義

法服은 法衣라고도 하는 것으로 佛教大辭典<sup>1)</sup>에 인용된 法衣의 정의를 보면 첫째, 僧尼가 입는 의복을 말하고 둘째, 佛의 規則에 적합한 의복 즉 如法衣, 應法衣 뜻이 있고 셋째, 法服·僧服·僧衣라고 한다.

佛典에 규정된 비구 범의는 佛教徒 특유의 가사만으로 불교 발생지인 인도복식의 영향을 받아 열대성 기후에 맞게 袈裟만이였다.(협의의 범의) 그러나 불교가 중국과 한국 및 일본에 도래하는 사이에 점차로 그 나라의 기후, 풍토, 성지의 영향을 받고 또한 그 나라의 문화와 융합하여 독자적인 범의가 생겼다. 즉 가사 속에 입는 衣類도 포함<sup>2)</sup>시키게 되었다.(광의의 범의)

印度의 경우는 僧侶의 服裝이나 一般人의 服裝이 같다.<sup>3)</sup> 그러므로 승려의 기본복장인 僧伽梨는 특별한 衣裳이 아닌 실용적인 平常의 복상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승려의 복장을 일반인의 복장과 구별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승려들은 언제나 일반사람과 다른 복장을 하여 상대방에게 修道者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갖게 하도록 관습적으로 착용하였다. 이러한 인도 승려의 일상복인 가사는 우리나라

라에서 衣服 자체의 의미 보다는 法服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法服인 袈裟를 걸치므로서 부처님께 예의를 다하고, 가사라는 매체를 통해 부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法衣란 부처님이 法을 說할 때 입는 것으로, 佛弟者로서 그 教理를 信奉하고 尊遂해 布教하는 僧의 복장으로 佛教徒 특유의 가사를 일컫는다.<sup>6)</sup> 俗世를 떠나 인간의 모든 번뇌를 불리치고 오로지 參禪과 布教에 전념하는 出家受戒 승려의 생활에는 袈裟와 鉢이 그 最初의 기본적 구비조건<sup>7)</sup>이었다. 그러므로 袈裟는 僧侶의 가장 중요한 法服이다.

### III. 律藏에 나타난 法服의 여러가지 要素

法服 즉 袈裟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가지 要素 중 律藏에 나타난 기본적인 요소로는 三賤 즉 色賤, 刀賤, 體賤을 들 수 있고 이 중 色賤을 가장 중요시하는데, 그 이유는 외면에서 보아 가장 관별하기 쉽기 때문이고 體賤과 刀賤은 가까이에서 보지 않으면 관별하기 어렵기 때문<sup>8)</sup>이다.

또한 기본요소는 아니나 法服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袈裟의 착장법이나 종류 및 크기 또한 이상의 것이 외형적, 물질적인 요소였다면 정신적인 요소로 들 수 있는 袈裟功德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 1. 色

袈裟色은 釋尊이 發明한 독특한 僧衣의 색으로 복잡한 色相이다. 색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적당한 색명이 없는 그 자체가 색상이 분명하지 않다는 뜻<sup>9)</sup>이다.

이러한 袈裟色을 一名 壞色이라 했으며, 괴색을 제정할 것은 질투, 사치 등의 상태를 생기지 않게하고 동시에 다른 것과 확실히 구분해 불제자의 표시로 한 것이 주요한 목적<sup>10)</sup>이었다.

그러므로 比丘의 옷을 가사색으로 染色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在家的 白衣와 구별

하여 出家의 옷임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가사색의 옷을 입은 사람은 불교의 比丘 뿐이므로, 가사를 입고 나쁜 일이나 나쁜 마음을 삼가도록 하려고 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가사색으로 물들이면 在家人의 옷이 못되므로 가치가 없어져 도난당할 염려가 없기 때문<sup>11)</sup>이다. 셋째, 所有의 집착을 덜기 위한 것으로 僧侶의 몸에 입는 衣의 색은 그것에 의해 탐욕과 집착을 일으키지 않는 색으로 더러워진 탁한 색이어야 했기 때문<sup>12)</sup>이다. 넷째, 施恩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sup>13)</sup>이다.

袈裟를 염색하는 방법에는 衣材 전체를 염색하는 染淨과 袈裟의 一部에 작은 오점을 붙이는 點淨 두 가지<sup>14)</sup>가 있다.

衣材 전체를 염색하는 색에 대해서는 佛法本來의 입장에서 보면, 색 자체에 좋고 나쁨은 없다고 한다. 다만 살아있는 인간이 佛法을 행하는 데 있어, 僧衣로서 어울리는 색이 가사색이다.

또한 點淨을 하게된 精神的 의미로는 五分律에 의하면 원래 點淨이란 다른사람(外道·在家)의 소유물과 구별하기 위한 표시로서 붙이는 것이나, 표시로서 만이 아니라 점점 “淨”의 쪽으로 중요성을 두게 되었고, 오늘날은 본래의 목적인 표시로서의 의미는 전혀 없고 “淨”의 의미만으로 되었는데 汚點을 붙이는 것을 왜 “淨”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佛法 독자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

가사색을 만들기 위해 처음에 比丘들이 사용했던 染料로는 牛黃, 黃土 등이었으나 衣의 색이 보기 좋았으므로 세존이 6종류의 염료 즉 樹根, 樹幹, 樹皮, 葉, 花, 果를 허용하였는데<sup>15)</sup> 이러한 색들은 거의 자연색이다.

또한 각 율장에 나타난 新衣에 염색하는 袈裟의 색을 보면 <표 1>과 같이 3종류의 색을 들고 있다.

이것은 편의상 가사색을 3종색으로 표시한 것뿐이며 袈裟의 색을 3종으로만 한한다는 것은 아니다.

#### 2. 衣材

衣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그것이 淸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으로, 그 淸淨이란 결국 “名

〈표 1〉 袈裟色の種類

律 藏	色 名
四分律	青 黑 木蘭
曇無德出四分僧戒本	-
摩訶僧祇律	-
五分律	-
十誦律	青 泥 茜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	清 泥 赤
南典大藏經	清 泥 黑褐
巴黎律	清 泥 暗褐

利를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니고 佛弟子들의 一生의 大問題<sup>19)</sup>이다. 또한 衣材의 淸淨이란 木線과 麻 등의 식물성 섬유인 布 혹은 모직물의 布를 이용하고, 모든 絹類는 누에의 생명을 갖고 한 것이므로 絹布를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南山道宣律師가 주장하였다.

그러나 의재의 문제는 재질 그 자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제자로서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

즉 같은 건이라도 施衣(絹)은 허용하고 野蠶線의 新袈裟는 허용하지 않는데, 이는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衣材에는 크게 糞掃衣와 施衣가 있다.

최초의 비구 의재는 분소의(pamsukula) 만이었으며 또 분소를 사용하는 것은 불교 비구를 포함한 당시 출가자 사회의 常法(sila)<sup>19)</sup>이었다.

그러므로 원칙으로는 분소의 즉 묘소와 塵溜에서 주운 것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여분으로 신사가 施한 衣(居士衣 gahapaticivaram)를 받는 것을 허락<sup>19)</sup>하였다. 이처럼 처음에는 분소의 만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擴大되어 나가는 佛教僧團의 衣服問題를 해결할 수 없어 그에 따라서 신도들이 포시하는 의복도 받아들일수록 정원하였다. 부득이 信徒들의 布施를 받아들일수록 허락하기는 하였지만 少慾知足하는 근본적인 이념을 벗어날 수는 없었으므로 이로 부터 법의의 옷감에 제한을 가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外道出家와 식별하고, 在家衣와 구별하기 위해서 의재의 내용을 제한하였다.<sup>17)</sup>

결국 비구들에게 허용되었던 의재는 일반사람들이 사용하였던 일반적인 의재들이고, 일반적인 의재가 아닌 특이한 것들은 일반인도 입기 곤란한 의재들이므로 비구들에게 금지되었다.

### 3. 形態

法服인 袈裟는 모두 長方形이며 이것은 같은 길이의 좁은 布를 눈부렁 모양으로 割截하여 천과 천을 다시 모아 꿰매서 만든 것이다. 5조 7조 9조 및 25조라고 하는 것은 布幅의 수에 의한 것으로 다섯 폭의 것을 5조, 일곱폭의 것을 7조, 아홉폭의 것을 9조, 스물다섯폭의 것을 25조<sup>18)</sup>라고 한다.

印度에서는 比丘에게 僧伽梨, 鬱多羅僧, 安陀僧의 三衣와 比丘尼에게는 三衣 외에 僧祇祇, 跋修羅의 五衣를 착용하도록 정했고, 그 외에 때에 따라 親衣(숙옷)를 착용하는 것을 허락<sup>19)</sup>하였다.

大乘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자들은 三衣 만으로 충분하였는데, 이 삼의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조가사인 안타회는 식가 당시에는 없었던 것으로, 일명 內衣, 下衣, 裏衣, 中着衣, 作務衣 라고도 하며, 室內에 혼자 있을 때, 일할 때, 大小便 行할 때 착용하는 것으로 日常의 작업과 취침에 착용<sup>20)</sup>한다.

7조가사인 울트라승은 일명 上衣, 上着衣, 入重衣, 院中衣라 하며, 한말할 때 7조의를 겹쳐 입는 것으로, 여러가지 儀式時나 다른 修行者들과 함께 있을 때 착용<sup>20)</sup>한다.

또한 衆會 때, 손님 接待時<sup>21)</sup>, 問法, 設法, 食事, 參禪 등 大衆과 함께 수행할 때 착용<sup>21)</sup>하며, 三衣 中 중간의 가격(價)을 갖었으므로 中價衣라고도 한다. 7조가사는 日常의 행사에 착용하는 것<sup>21)</sup>이고 偏袒右肩으로 입는다.<sup>21)</sup>

마지막으로 대가사인 승가리는 일명 大衣, 重衣, 複衣, 舍衣, 設法衣, 伏衆衣, 入王宮衣, 高勝衣, 九品衣라 하고 9조에서 25조 까지 있다. 또한 梵語로 승가리이며, 쪽을 합한 가사, 여러쪽 가사라 하여 왕궁에 갈 때, 乞食할 때 입는다.<sup>26)</sup> 田相의 조수가 매우 많으므로 “雜碎衣”, “衆集衣”라<sup>27)</sup> 하기도 한다.

#### 4. 着衣法

法服의 着衣法에는 편단우견법과 통견법이 있다. 편단우견으로 가사를 착용한다는 것은 右肩을 덮지 않고 右腋下로 돌려서 右肩上으로 넘겨 입는 착의법으로 열대성 기후 지역인 中印度(Mathura)에서 주로 착용하였다.

舍利佛問經에 의하면 修恭養時(見佛時, 問訊師僧時, 應隨事相時) 즉 부처님을 뵈거나 師長에게 問法하는 恭謹한 禮裝이거나 作業의 便宜를 위한 作業服일 경우에는 편단우견으로 착용<sup>28)</sup>한다.

도원선사는 “편단우견이 常途의 法이다”라고 하였고, 편단우견은 通常 걸치는 방식이고 우견을 벗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 대해서 인제나 도움이 되도록 움직이기 쉬운 모양으로,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 대한 예의이며 바른 자세라<sup>29)</sup> 하였다. 뿐만 아니라 모든 大小乘 經典들은 불제자들이 問法하는 장면에서 한결같이 “偏袒雨肩”한다고 하여 원래 세존 당시 中印度에서는 편단우견하는 것이 정상이었던 듯 서술<sup>30)</sup>하고 있다.

寒冷한 간다라(Gandhara) 지방의 착의법으로 一枚의 長方布로 한끝을 背後로 부터 左肩上으로 넘겨 고정시킨 후 다른 한 끝을 右肩과 胸部를 덮어 다시 右肩上으로 넘겨 입는 착의법을 말한다.

舍利佛問經에 의하면 作福田時(國王請食時, 入里乞食時, 坐禪誦經時, 巡行樹下時) 즉 위의 갖추어야 할 경우 통견 착용<sup>31)</sup>한다.

袈裟의 田相을 보다 확실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통견으로 하는 것이 좋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아닌 곳에서는 行往坐臥 등의 생활에 대해서 통견으로 걸쳐 입어도<sup>32)</sup> 괜찮다.

#### 5. 袈裟功德

袈裟功德이란 세상에서 생각하는 功德과는 완전히 다르다. 즉 우리들의 정신적, 물질적 욕망 즉 우리들의 생각(의도)을 충족시켜 주지 않는다고 하는 功德 - 無所得의 功德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無所得의 功德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功德일까. 無所得이라고 하는 것이야 말로 佛法의 본질임과 동시에 바른 袈裟에 있어서의 본질이기도 하다. 이 명리를 만족시키지 않는 가사공덕이야 말로 廣大無變하여 無量不可思議한 기능도 있고, 또 佛法으로서, 가사로서의 진짜 가치가 보이는 것<sup>33)</sup>이다.

袈裟를 착용하여 얻는 공덕을 가사공덕이라 하는데 搭袈裟의 功德은 袈裟를 입은 날 부터 一切의 惡을 끊고 正覺을 이룬다고 하는데 5條衣는 貧慾, 7條衣는 瞋慧, 大衣는 愚痴를 끊으므로 하여 즉 三毒을 모두 消滅함<sup>34)</sup>을 말한다.

이러한 袈裟功德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正法眼藏<sup>35)</sup>의 “袈裟功德”에 보면 다음과 같이 10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몸을 덮으므로 부끄러움을 없애고, 자주 참회의 마음을 일으켜 불도를 수행하게 한다. 둘째, 추위 더위 모기 독충 나쁜 짐승과 毒蛇 등을 피하게 되어 안온하게 修行할 수 있게 한다. 셋째, 出家者로서의 “相”을 나타내 가사를 보는 자는 邪心을 멀리하게 된다. 넷째, 袈裟가 인간과 천인을 구제하는 불도의 목표이므로, 가사를 존중히 생각하면 凡天에 태어나게 된다. 다섯째, 가사를 입을 때 그것이 佛道の 목표인 것을 생각하게 되면, 중생의 죄를 사라지게 해 여러가지 행운을 낳게 된다. 여섯째, 袈裟를 壞色으로 염색하므로 汚辱의 욕망을 떨쳐버리고, 탐욕과 애욕을 떨치게 한다. 일곱째, 가사는 佛의 청정한 옷이므로 오랜 번뇌를 끊고 행운의 마음으로 되게 한다. 여덟째, 몸에 가사를 걸칠 때는 죄 있는 행실은 없어지고 열가지 좋은 행실의 道가 점점 확대되어 온다. 아홉째, 사람의 생명을 구제하게 된다. 열째, 袈裟는 甲冑 같은 것이므로 煩惱의 毒失이 몸을 손상시키게 한다.

이와 같은 이유에 의해 三世의 諸佛 및 緣覺, 성문 등 모든 清淨한 出家들이 가사를 입을 때에는 모두가 해탈의 보좌에 앉고, 지혜의 검을 잡고, 번뇌의 악귀를 퇴치함과 함께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세상의 의복은 욕망의 더러움을 증가시키나, 佛의 가르침의 衣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또한 悲華經<sup>36)</sup>에서는 袈裟功德을 다섯가지로 나타

내고 있다.

첫째, 죄를 범했을지라도 가사를 입고 순하면 부처가 되는 길에 멀지 않을 것이다. 둘째, 귀신이 있다 해도 가사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세째, 원수가 맺혔을지라도 가사를 입으면 가까운 사람이 부자가 될 것이다. 네째, 衆生이 고통스러워도 袈裟의 힘으로 慈悲心이 일어날 것이다. 다섯째, 전쟁 중이라도 가사를 존중하면 敵에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등이다.

이처럼 袈裟에 담긴 뜻이 深奧하였고, 袈裟를 옷으로 그냥 걸친 것이 아니라 가사에 담긴 뜻으로 인해 그 의미는 더욱 컸던 것 같으며, 袈裟를 尊重하여지고 바르게 傳授해야 하는 理由가 있는 것이다.

## VI. 律藏과 比較해 본 우리나라의 法服

律藏을 통해 살펴 본 여러가지 要素를 크게 形態의인 側面과 精神的인 側面으로 나누어 우리나라의 法服과 비교해 살펴보겠다.

### 1. 外形[形態]의인 側面

法服의 外形의 要素로는 주로 袈裟의 色, 衣材, 形態, 着衣法 등 구성적인 것에 관한 것으로, 형태적인 측면이 율 제정 당시와 각 나라로 전파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겠다.

法衣의 색에 대한 변화는 염색을 하는 사람이나 그 지방의 기후와 염료, 염색의 과정과 각 나라가 정하는 服飾禁制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졌던 것이 각 종파가 추구하는 경전에 의지하면서 남과 북의 구별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가사의 색을 달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각 국의 가사색으로는 印度를 비롯한 동남아는 黃金色, 中國은 紅色을 사용하는데, 中國에서는 黃金色이 天子色이므로 天子色을 袈裟色으로 할 수 없어 紅色袈裟를 사용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新羅時代 이래 주로 紅色, 黃色, 紅綠紺相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주된 색으로는 紅色을 들 수 있다. 가사색으로의 홍색은 물론 중국의 영향이 크긴 하였으나, 우리의 民俗信仰과도 관계가 깊다.

紅色에 관한 우리나라 民俗思想에는, 醬油를 담고 고추나 목탄을 띄우는 것은 형태적인 것 보다 色彩的 呪術 禁忌 신앙에서 由來한 것<sup>37)</sup>이며, 또한 결혼날 신부의 얼굴에 연지를 찍는 것, 冬至에 팔죽을 먹는 것, 符籙을 꼭 붉은 글씨로 쓰는 것,<sup>38)</sup> 손톱을 붉게 물들이면 諸病이 낫고, 처녀아이에게 붉은 탕기를 달면 악귀의 근접을 막는 것<sup>39)</sup> 등이 있다.

그러나 불교에서의 紅色은 高貴한 의미이나, 民俗信仰에서의 紅色은 呪術 禁忌信仰이므로 같은 紅色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는 다르다. 그러나 어쨌든 귀신을 멀리하고, 악하고, 너러운 것을 피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홍색의 의미를 보아야 할 것이다.

高麗나 朝鮮時代 우리나라의 袈裟色은 스님의 職位에 따라 색 구분이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宗派에 따른 색 구분이 있을 뿐 직위에 따른 색 구분은 없다. 그러나 中國이나 日本의 경우는 스님들의 직위에 따른 색의 분화가 복잡하게 되어 있다.

律에 나타난 袈裟의 여러가지 요소 중 衣材에 관한 언급이 가장 적운데, 이는 다른 요소 보다 덜 구체화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衣材로서 중요한 것은 재질 그 자체 보다는 佛弟子로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냐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분소의가 가장 가치있는 의재이기는 하나 실제로 재료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 정신을 강조한 것이고, 특수하지 않고 사치스럽지 않은 것으로 일반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絹, 綿, 麻, 毛 등 일반적인 직물이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袈裟의 衣材로는 주로 비단 종류가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실용적인 옷감으로 太古宗 계통에서는 거울에는 양단과 공단, 여름에는 갑사와 숙고사 등을 사용하고, 曹溪宗에서는 합성섬유를 사용하고 있다.

袈裟의 종류를 보면 佛陀在世時는 용도에 따라 즉 活動時는 五條, 儀式時나 大衆과 함께 수행할 때는 七條, 왕궁 입궐 시나 托鉢時는 大衣 등을 구분하여 착용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조계종에서도 용도에 따른 구별을 하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印度의 경우는 기후에 따라 三衣를 모두 착

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長衫을 입고 그 위에 가사를 입으므로 三衣 중 하나만 착용하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인도와 같이 기후에 따라 가사의 착용을 달린 것이 아니라 의식의 중요성에 따라 가사의 착용이 정해진 것 같다. 즉 曹溪宗의 경우, 儀式 때 보통은 七條衣, 아주 큰 法會 때는 九條衣를 착용한다. 그러므로 조계종은 五條, 七條, 九條 가사를 착용하고, 二十五條 가사는 거의 착용하지 않는다고 하나 실제로 소지해 착용하고 있는 스님도 계시다.

그러나 太古宗에서는 五條, 七條 가사는 착용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오조가사는 일본의 絡子에서 영향 받은 것이라 하여 착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계종의 가사를 만드신 慈雲 스님<sup>40)</sup>은 우리나라의 경우 장삼을 입고는 큰 가사를 걸치지 못하므로 승려라는 표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오조가사를 만들어 착용한 것이라 한다.

현재 조계종 가사는 조선시대의 크기가 크고, 通門佛을 내어 點眼하며 가사에 들이는 경비가 너무 비싼 것 등 원칙적인 것이 아니므로 부처님의 뜻을 살려서 가사의 크기는 작게 하고, 三種 壞色으로 하며, 비단으로 가사를 만들지 않는 등 색, 의재, 크기 세가지를 律에 근거하여 자운스님이 만드신 것이다.

인도에 있어서 가사는 日常服이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儀式服 즉 法服의 의미가 크다. 그 이유는 일상복이나 실용복이 아니므로 아무 때나 입는 것이 아니라, 의식시에만 귀하게 착용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가사의 着衣法은 三國時代부터 현재까지의 佛畫, 肖像畫, 彫刻 등을 보면 通肩과 偏袒右肩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특히 승려들의 경우는 편단우건을 착용한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이는 편단우건이 활동하기 편하고 부처님이나 高僧에 대한 공경스런 표현을 하기 위한 것과 기후적인 여건에 따라 장삼 위에 가사를 걸쳐야 하므로 자연적으로 가사가 일상복 보다 장식적인 역할이 크므로 편단우건으로 걸치게 된 것이다. 律에는 통건과 편단우건의 착용법이 있으며 그것의 착용 구분이 뚜렷하나, 현재는 나라 마다 적합한 착용법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동남아쪽 스님들도 보통 낮에는 편단우건을 입는 것이 常例이나, 밤이나 다른 나라에 갈 때는 기후의 변동으로 통건을 착용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사 착용법은 시대가 바뀌어도 거의 변화없이 계속된 것으로, 통건 착용은 거의 없이 의식시에만 입는 편단우건 가사로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다.

## 2. 內面[精神]의인 側面

現在の 佛敎는 過去와 같이 遺族佛敎나 上流階層에 속한 것이 아니라 大衆化 佛敎 時代이므로 信仰의 屬性上 스님들은 大衆의 信仰의인 支柱이다. 스님들에게 있어서 佛道를 닦는데 禪이 매우 중요하긴 하나, 外的인 모습을 통해 일반사람에게 전달되는 의미도 중요하므로 布敎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袈裟의 功德을 통해 부처님의 뜻이 전달되도록 대중에 접하게 될때 가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가사가 상징하고 전달하는 의미는 오히려 과거 보다 더 큰 것 같다.

袈裟의 精神的 측면도 역시 가사의 여러가지 요소와 관련지어 살펴보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사색이 일정하지가 않은데, 그 이유는 어디서 袈裟佛事 하느냐에 따라 같은 宗派라도 색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一定한 색을 내려면 宗團에서 統制를 하여 一定하게 한 곳에서 가사의 색을 만들지 않으면 不可能하나 불교에서는 佛敎의 敎理가 나타내듯이 劃一的인 것을 排斥하고 自律的인 것을 지향하므로 이러한 자유로운 色相이 원칙에 맞는 것이라고 하는 측<sup>41)</sup>과 이와는 반대로 가사를 제대로 傳授하는 것이야말로 불교를 제대로 이어가는 것이라는 袈裟功德을 주장하는 측<sup>42)</sup>도 있다.

袈裟를 日常服으로 착용하는 印度의 경우는 律에 나타난 것처럼 가사를 몸에서 분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겠지만, 우리나라의 僧侶들은 儀式時 외에는 거의 가사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袈裟를 우리나라에서는 法服으로 존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고 어차피 日常服이나 實用服이 아니므로 아무때나 입는 것이 아니라, 儀式時에만 귀하게 착용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新羅 때는 가사를 귀하고 존중해 생각해서 만지지도 못하게 하였다 한다. 결국 나라가 다르고 그 나라의 文化나 生活習俗, 氣候 등에 따라 가사의 착용방식도 달라지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原則이나 아니냐가 중요하기 보다는 그 의미를 깊이 새기야 할 것 같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袈裟가 僧侶의 儀式服으로 정착된 이상 부처님의 원 뜻을 전달하는데 강조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初期 佛教時代에는 禪과 더불어 형식적인 면도 강조하여 袈裟를 중요시하였으나 最近에는 형식적인 면 보다 禪을 중시하는 불교의 특징 때문에 袈裟를 소홀히 여겨 簡略化 되었다. 이 옛튼 율장에서 제시된 것처럼 항상 가사를 착용하지는 않더라도 가사 본래의 뜻을 잘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생각된다.

僧伽는 경제적으로 共同生活을 하므로 작은 布이건 큰 布이건 공평히 분배하여 조각들을 모아서 가사를 만들어 입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이 의미가 사라지고 새 천을 일부러 조각을 만들어 五條, 七條, 九條, 二十五條(9조 11조 13조 15조 17조 19조 91조 23조 25조)에 맞추어 잘라 다시 이으므로, 완전한 새천에 의한 割切衣의 製作은 少慾知足하는 기본적인 衣服觀과는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정신적인 의미는 강조가 되겠지만, 물자를 낭비하고 노력을 헛되이 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袈裟의 衣材 또한 糞掃衣가 가장 가치 있으나 실제로 이것을 재료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 정신을 강조한 것이라 생각된다. 즉 일반인들이 施主하거나, 일반인들이 착용하는 실용적이고 사치스럽지 않은 옷감이면 되는 것이고, 옷감 자체 보다는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정신적 의미는 계승하고, 이대로 할 수는 없으므로 종파마다 나름대로 약간의 이견은 있으나 통일된 의재를 사용하고 있다. 오히려 분소의를 만들려다 보니 더 형식화, 사치화될 수 있으므로, 정신적인 의미를 계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가사를 걸치는 것도 현재는 거의 表示의 역할을

할 뿐이다. 그러므로 활동하기 편하고 기후적인 여건에 따라 長衫 위에 걸치므로 표시적이고 상징적인 역할을 할 뿐이어서 통견은 사라지고 대부분 편단우견만 착용하고 있다. 기본적인 착용법인 통견과 편단우견과는 달리 예외적으로 조계종에서는 간편한 絡子도 걸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袈裟”에 담겨 있는 의미는 衣服으로서 보다는 정신적인 상징물로 여기고 있고, 日本이나 中國 등의 다른 나라에 비해 부처님의 원 뜻을 가장 잘 지키고 있는 나라로 衣服으로서의 가사의 발달, 분화에 치중하기 보다는 부처님의 근본이념을 잘 살리는데 袈裟의 뜻을 두고 있다.

## V. 結 論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律에 規定된 것은 細部的으로 袈裟의 여러가지 요소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것이 간략화 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가사가 제정되었던 인도와 우리나라의 기후적인 요인이 다르다는 것이 첫째 이유이고, 인도에서는 袈裟가 日常服으로 平常時에 착용되므로 많은 변화가 되었는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儀式服이나 法服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정신적인 의미만 강조하고 있어 많은 변화가 없었던 것이 두번째 이유이다.

그러므로 袈裟의 種類, 色, 衣材, 着衣法 등에 통일된 원칙이 없어 대부분의 宗派가 원래의 袈裟의 의미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으로 가사를 착용하고 있다. 또한 스님들 각자에 따라 부처님의 근본 정신에서 벗어나 무질서하게 가사가 만들어져 입혀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法服인 袈裟를 정신적인 상징물로 보고, 정신적인 뜻을 강조하려면, 袈裟의 통일된 方案도 필요하다.

## 【참고문헌】

- 1) 總合 佛教 大辭典 編輯委員會, 總合 佛教 大辭典 下, 法藏館, 1988, p.1263.



- 2) 井筒雅風, 法衣史, 雄山閣出版, 1982, p.16.
- 3) 최완수, 간다라 佛衣考, 불교미술 1, 1973, pp. 87-88.
- 4) 이은하, 佛敎辭典, 불서보급사, 1961, p.5.
- 5) 이순덕, 法衣에 관한 研究, 영남대, 1982, p.5.
- 6) 井筒雅風, 前掲書, pp.13-16.
- 7) 澤木興道 監修, 久馬慧忠 篇, 袈裟의 研究, 大法輪閣版, 1967, p.45.
- 8) \_\_\_\_\_, \_\_\_\_\_, p.44.
- 9) 이희익, 佛敎의 敎團生活, 佛光出版部, 1984, p.39.
- 10) 工藤成樹, 佛敎と衣生活-②-色, 衣生活 研究, vol 9 No 2, 1982, p.50.
- 11) 李智冠, 韓國佛敎所依經典研究, 寶蓮閣, 1973, p. 552.
- 12) 平川彰 著, 律藏의 研究, 山喜房佛書林刊, 1982, p.739.
- 13) 南典大藏經 券3, 大藏出版 株式會社, 1938, p.499.
- 14) 澤木興道 監修, 久馬慧忠 篇, 前掲書, pp.40-41.
- 15) 南典大藏經 3권, pp.51-53.
- 16) 長井眞琴 著, 佛敎의 法律思想, 대동출판사, 1982, p.315.
- 17) 佐藤密雄 著, 原始佛敎 敎團의 研究, 山喜房佛書林刊, 1972, p.673.
- 18) 李順德, 前掲論文, p.15.
- 19)~20) 總合 佛敎大辭典 下, p.1263.
- 21) 中村宗一, 全譯 正法眼藏 券4, 성신서방, 1982, p.56.
- 22) 이희익, 前掲書, p.42.
- 23) 澤木興道 監修, 久馬慧忠 篇, 前掲書, p.199.
- 24) 佐藤密雄 著, 前掲書, p.123.
- 25) 無著道忠選, 禪林象器箋 上, 中文出版社, 1909, p.687.
- 26) 釋日陀 篇, 沙彌律儀要略, 通度寺 金剛戒壇, 佛紀 2992, p.198.
- 27) 大正 新修大藏經 券 40, No. 1804, p.105.
- 28) 崔完秀, 二重着衣法考, 考古美術 154 · 155, 1982, p.146.
- 29) 澤木興道 監修, 久馬慧忠 篇, 前掲書, p.198.
- 30) 藏阿含經 券3, 遊行經 제2中, 後秦 弘始 15년, p. 413.
- 31) 崔完秀, 二重着衣法考, p.46.
- 32) 澤木興道 監修, 久馬慧忠 篇, 前掲書, p.198.
- 33) \_\_\_\_\_, \_\_\_\_\_, pp.69-70.
- 34) 韓國佛敎大辭典 7권, 보림각, 1972, p.36.
- 35) 中村宗一, 全譯 正法眼藏 券4, pp.84-85.
- 36) 大正 新修大藏經 券 40, No.1804, p.105.
- 37) 임동권, 韓國民俗學論考, 進文堂, 1982, p.94.
- 38) 홍은규, 엄직물에 나타난 韓國人의 色彩感情 및 色彩調和에 관한 고찰, 홍익대, 1982, p.24.
- 39) 千香順, 東洋圈의 宗教와 色彩關係의 研究, 동국대, 1988, p.10.
- 40) 慈雲스님: 부산 감로사 을사스님으로 계셨고, 조계종 가사를 처음 만드신 스님.
- 41) 인환스님 제공, 동국대학 불교대 을사스님.
- 42) 中村宗一, 全譯 正法眼藏 券4, 袈裟功德 參照.